

2014

11

이달의 주요뉴스

‘공인보도와 인격권’ 세미나 개최
언론중재위원회, 2014년도 국정감사 수감

특별기고

갈등과 편견에서 공존과 협력의 이슬람으로

언론중재위원회 NEWS

언론 사람

제173호



언론중재위원회



Contents

- 03 이달의 주요뉴스 '공인보도와 인격권' 세미나 개최
언론중재위원회, 2014년도 국정감사 수감
- 04 특별기고 갈등과 편견에서 공존과 협력의 이슬람으로
- 06 내 안의 인문학 그림에도 종류가 있다
- 07 위원단상 나이를 먹는다는 것
- 08 신 동의보감 비염
- 09 해외연수 후기 美 LA지방법원 소액재판 조정인 활동기
- 10 조정후기 쿠오바디스, 인터넷
- 11 세미나 중계
- 12 신입직원 한마디
- 13 위원동정 · 위원회 소식
- 14 조정중재사례 소개 및 독자마당

발행인 박용상 편집인 권우동 발행일 2014년 11월 1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홈페이지 www.pac.or.kr 편집 · 디자인 (주)잉카커뮤니케이션즈 TEL 02-548-1008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www.pac.or.kr
- 모바일웹 m.pac.or.kr
- 조정중재아카데미 edu.pac.or.kr



언론파해 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 · 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론분쟁의 조정 · 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 · 반론 · 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 · 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
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
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
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 뉴스 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
부를 심의합니다.



ADR 전문교육 & 언론 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조정 · 중재를 비롯한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에 관한 전문교육과 언론피해예방 및 구
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인보도와 인격권’ 세미나 개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10월 17일과 18일 이틀간 경북 문경 STX리조트에서 2014년도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공인보도와 인격권’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우리나라 공인 관련 판결과 미국, 독일에서의 공인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공인의 개념과 공인보도에서의 인격권 침해 요건 등에 대해 발제했다.

김 교수는 발제문에서 “공인에 대한 보도의 경우에는 사인과 달리 언론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여야 한다”며, 다만 “공인의 경우에도 내밀 영역은 보장되어야” 하고 “공인의 유형을 세분하여 그 지위나 역할에 따라 차별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는 유의선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서울제1중재부 중재위원)가 맡았으며, 지정토론에는 권석천 중앙일보 사회2부장, 권오승 중재위원(서울제6중재부),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유제민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패널로 참여했다(상세내용 11면 참조).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박용상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2014년도 국정감사 수감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필요” 의견도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10월 14일 국회에서 2014년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았다.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강한 전파력과 확산성을 지닌 인터넷 매체로 인한 피해 구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기사의 전파, 검색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으며, 모바일 미디어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도록 언론중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날 국정감사는 위원회를 비롯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갈등과 편견에서 공존과 협력의 이슬람으로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박물관장

이슬람과 서구 : 갈등과 화합의 정반합

중동은 알 카에다에 이어 IS(이슬람국가)라는 급진 테러조직을 궤멸하기 위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 지난 60여 년 동안 팔레스타인 저항운동을 향한 이스라엘의 무차별 폭격으로 사상자가 급증하였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으로 또 수십만 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다. 피해자들의 극도의 분노와 복수의 응어리들이 오늘날 중동에서 극단적 저항조직들이 양산되는 사회적 배경이다. 한편 이슬람을 앞세우는 테러조직들의 반인륜적 야만행위로 인해 어느덧 서구에는 “이슬람=테러”라는 등식이 폭넓게 확산되면서 두 세계는 화합할 수 없는 적대적 거리를 넓혀가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이슬람과 서구는 역사적으로 갈등과 화해라는 두 개의 축이 정반합을 거듭해 왔다. 동서양이 만나는 터키 이스탄불에는 인류 건축사의 압권인 6세기경에 지어진 성 소피아 성당이 있다. 내부에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상과 기독교 모자이크 성화와 함께 이슬람교의 종교적 장식들이 나란히 놓여있다. 두 종교, 두 문명, 두 대륙이 한 점에서 만나 조화와 공존의 미를 마음껏 뽐내고 있다.

역시 이스탄불의 대표적인 유대인 공동체 마을인 갈라타 지역에서는 이슬람의 금식월인 라마단 한 달 동안 상점들이 거의 문을 닫는다. 내가 만나본 유대인 상점 주인들 중에는 이슬람주민들과 똑같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금식을 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니! 유대인들은 금식의무가 없는데 왜 하필 힘든 고통을 자초하십니까?”

그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내 고객이 신의 뜻을 지키기 위해 저렇게 힘들게 금식하면서, 배고픈 자의 고통을 공유하고 공동체의 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내가 배불리 먹고 고통을 외면한다면 어찌 내 고객에 대한 예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이슬람은 갈등과 전쟁보다는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함께하

는 지혜를 통해 천년(651~1683년)의 세계제국을 이루었고, 중세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학문과 과학기술, 예술적 르네상스 시대를 맞았다. 더욱이 중세 암흑기에 빠져있던 유럽을 일깨워 르네상스를 촉발시키기도 했다. 나아가 실크로드라는 문명의 젖줄을 통해 첨단 학문과 기술을 동서로 전파해주면서 티무르 시대 중앙아시아의 번영, 인도 무굴제국 시기의 타지마할 축조, 원-명 시기의 중국의 과학발전에 이어, 세종 시기에는 조선의 과학혁명을 이루는 바탕이 되었다.

그럼 중세 서양의 퇴보와 이슬람 세계의 번성을 갈랐던 인식론의 차이는?

그것은 그리스-로마의 철학과 학문전통을 이해하는 사고방식과 세속적인 지식을 수용하는 태도의 차이였다. 6백년 이상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권위적인 가르침으로 대표되는 서양 기독교 세계는 플라톤을 중심으로 그리스 철학과 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러나 그러한 합리적인 사상들은 기독교 교의라는 프리즘을 거치면서 거룩한 천국과 지상의 비천한 삶 사이에는 연결할 수 없는 커다란 간극이 있다는 견고한 독단으로 변질되었다. 그 결과 인간이란 이성적 판단과 과학적 활동으로 도출된 경험을 통해서만으로는 신의 영역인 우주를 이해할 수 없다는 절대한계를 만들어 놓게 되었다.

반면 이슬람 세계는 종교적 해석에 이성과 과학이라는 방법론을 허용했다. 나아가 “과학연구는 종교적 의무”라는 놀라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주었다. 이로써 중세 이슬람 세계는 실과 비늘의 관계처럼 학문연구가 종교적 신앙과 결합됨으로써 무한의 진보를 거듭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과학용어와 일상 언어 중에도 아랍어에서 유래된 것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화학(chemistry), 연금술(alchemy), 천문학(astronomy), 점성학(astrology), 대수학(algebra), 그리고 커피(coffee), 설탕(sugar), 레몬(lemon), 음악(music), 파자마(pajama) 등도 아랍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슬람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는가?

610년 메카에서 무함마드란 인물에 의해 완성된 이슬람은 유일신인 하느님을 믿는 종교다. '알라'는 하느님의 아랍어 표기다. 이슬람교는 예수를 받아들이되 삼위일체를 믿는 기독교와는 달리 예수의 신격화를 부정하였다. 이슬람은 유일신 사상을 강조하면서 아담에서 아브라함, 모세, 예수로 이어지는 성경상의 많은 선지자들을 시대적 임무를 띤 훌륭한 인간 예언자로 인정하고 추앙하였다. 무함마드는 예수 이후에 신에 의해 보내진 마지막 예언자로 보았다. 무함마드의 계시서인 코란은 모세오경, 시편, 복음서 등 앞선 경전들의 내용을 총합한 완성된 경전으로 간주되었다. 중재자 없는 신과 인간의 직접교통, 계급과 인종, 피부색을 초월한 만민의 평등과 구체적 형제애 의식 등이 이슬람의 특징이다.

역사 속에서 되짚어보는 중동의 한류 : 중동과 신라

지금 중동에서는 한류열풍이 식을 줄을 모른다. 1970-80년대 100만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열사의 땅에서 신기루를 만들어 놓았다. 그들이 흘린 땀과 열정이 지금 중동의 고속도로, 상징적 랜드마크 빌딩, 발전소, 대학, 교량을 만들었고, 아랍 현대화의 초석이 되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는 한국산 가전제품, IT, 자동차를 사용하며 K-Pop과 한국 드라마를 즐기며 살아간다. 거의 모든 중동국가에서 "Made in Korea" 제품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24시간 한국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지독한 짝사랑이다.

이러한 한국사랑은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다. 우리와 중동-아랍 간에는 적어도 1,500년의 오랜 역사적 교류와 문화적 접촉이 있었다. 7세기 중엽 페르시아 왕자 일행이 신라로 망명해 와서 신라공주와 결혼을 하고 신라와 페르시아 제국간의 돈독한 우의를 다졌다는 고대 페르시아 서사시인 쿠쉬나메가 최근 발견되었다. 더욱이 18명의 아랍 학자들이 기술한 20여 권의 아랍 역사서, 지리서, 백과사전에 신

라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아랍 상인들은 9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해로를 통해 신라에 빈번하게 내왕했다.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은 귀국을 포기하고 한국에 눌러 살았다. 척박한 사막 오아시스에서 물과 초원을 그리며 살아가던 그들에게 사계절의 아름다움과 풍성한 먹을거리, 광물과 금이 풍부한 신라야말로 최고의 거주지였을 것이다. 그들은 신라를 사라져버린 낙원 아틀란티스에 비유하기도 하고, 아무리 불치병 환자라도 신라에 오기만 하면 씻은 듯이 나아버린다고 기술하면서 한국의 쾌적한 삶의 조건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의 한국을 향한 동경은 신라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졌다. 고려 초기에는 대식이라 불리는 아랍상인들이 수백 명씩 사절단을 이루며 개성을 드나들었고, 고려 말에는 이슬람 공동체가 형성되고 모스크까지 짓고 살았을 정도였다. 그러면서 우수한 이슬람 과학기술과 유용한 첨단 정보를 우리 사회에 전달해 주었다. 조선 초기 세종대왕 때는 음력의 정비에는 물론 각종 과학기기의 발명에도 커다란 공헌을 했다. 이슬람 대표들이 세종대왕의 초청으로 궁중에서 코란까지 낭송했을 정도로 우리 사회와 이슬람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인식의 전환

중동-이슬람 사람들은 한국을 좋아해서 코리아 브랜드를 찾고, 한국말과 문화를 배우려 하는데 왜 우리는 그들을 버리고 가야 하는가? 이제는 서구 중심의 고정관념과 편견보다는 우리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친구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이슬람을 종교적 문제로만 보면 '선과 악'의 구도로 서로 불편해질 수 있다. 같고 다름이라는 문화의 잣대로 보고 협력 파트너로 생각하면 어떨까. 지구촌 미래를 함께 짊어질 나와 다른 가치,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따뜻한 이웃으로 이슬람 세계를 끌어안는 자세가 필요하다. 15억 인구, 57개 국가를 가진 세계 최대의 단일 문화권을 적대적 이해당사자로 만들어 놓고, 21세기 글로벌 전략을 논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온당치 않은 것 같다.

필자 소개

-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 ▷ 한국 최초로 터키 국립 이스탄불대학으로 유학, 중동 역사와 이슬람 문화로 역사학 박사학위 취득
- ▷ 튀니지 사회경제연구소(CERES) 연구원, 제다 이슬람교육센터 아랍어 연수, 이슬람권의 유엔인 OIC(세계이슬람회의기구)의 이슬람역사문화 연구소(IRCICA) 연구원, 이스탄불 마르마라 대학 중세사학과 조교수, 미국 Univ. of Washington 중근동학과 교환교수 역임
- ▷ 주요 저서 : 〈이희수 교수의 이슬람 : 9·11 테러 10년과 달라진 이슬람 세계〉 〈이슬람과 한국문화〉 외 다수



그림에도 종류가 있다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요즘 한국의 드라마가 한류 바람을 타고 인기다. 이는 한국 드라마의 설정이나 출연하는 연기자들의 탄탄함에도 기인하는 것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의 이미지를 한껏 고양시키고 있는 드라마를 보다가 공연히 가슴이 뜨끔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사실 우리 드라마의 대부분은 일반 서민들의 삶을 그리기보다는 제법 있는(?) 집들의 욕심과 질투로 인해 빚어지는 사건들이 주류를 이룬다. 그런데 이 드라마 속 재벌 집에 걸려있는 그림이나 집안 장식품이 나올 때면 얼굴이 붉어진다. 대부분의 드라마 속 그림은 고흐나 클림트의 모작 또는 이미테이션이 대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대체 예술성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벽장식용 그림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조각하기 짝이 없는 인테리어 소품이라 불리는 장식품들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집안에서 사용하는 가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외국의 한국드라마 팬들에게 우리의 이런 문화적 민낯이 그대로 드러날까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드라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아니 조금 산다는 사람들의 문화적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라마를 그 시대의 얼굴이자 거울이라고 하니 말이다.

물론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지난 달력에서 예쁜 그림을 오려 내 액자를 만들어 벽에 걸곤 했다. 여기에는 소박한, 가난하지만 예쁜 것, 아름다운 것에 대한 자그마한 소망이 담겨있었다. 그냥 액자가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액자였던 것이다. 그런데 요즘의 그림은 이런 소망을 담은 액자가 아니라,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용돈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아는 것 같이 화려한 짝퉁 그림이 왜 그곳에 걸려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걸려있다.

그림은 되도록 많이 걸고 인테리어 소품은 집안에 그득하게 늘어놓으면 좋은 것일까? 아니다. 있을 곳에 있어야 하고 주변과 어울려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 집안의 기풍과 살림을 하는 여성의 안목이 드러나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공부하고, 감상하러 발품을 파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옷을 입을 때도 소위 코디를 하면서 그림을 걸고 집을 장식하면서는 이런 조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하긴 뮤지컬과 오페라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에게 팝아트와 일러스트풍의 장식용 그림을 구분하라고 하는 것은 병아리를 보고 암수를 구분하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겠지만 말이다.



모나리자의 열기



핸드폰으로 보는 모나리자

이제 우리 사회는 발터 벤야민이 일찍이 간파했던 것처럼 기술복제시대에 원본이 사라지고 복사본이 원작을 대체할 것이라고 우려했던 현실이 우리 사회에서 그대로 나타나 이제는 원작의 아우라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인터넷 화면으로, 구글의 뮤지엄 프로젝트로 검색을 통해 보는 모나리자와 직접 파리의 루브르에 가서 보는 원작이 주는 감동이 같을까. 사람에 따라서는 같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글썽. 이렇게 복제본이 원본을 대체하다보니 세상에 어려운 어른도 없고 지도자도 없지는 것은 아닐까.

사실 그림을 본다는 것은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동시에 그 그림을 같이 보거나 이미 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을 공유하고 때로는 다른 생각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는 그런 도구이다.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원본이 아닌 복제본 아니 복사본을 가지고 이런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우라란 예술작품의 이미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불상이나 성모상에서 느끼는 것처럼 그 자체와 주변에서 풍겨내는 고고함 같은 것이다. 그림이라고 해서 모두 그림은 아니다. 소설에도 일반소설과 대중소설과 판타지 소설, 무협지 등등이 있듯 말이다. 누군가에게 취미를 묻자 독서라고 답하기에 요즘 읽는 책은 무엇이야고 했더니 '만화책'이라고 했다던가. 그림에 대해 많이 아는 것처럼 행세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집에 어떤 그림이 걸려있는지 어떤 그림을 집에 걸어 둘지부터 꼼꼼히 다시 생각해보자. 그림을 본다는 것은 과정이 중요하지 본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

올해가 회갑이다. 나 자신도 믿겨지지 않는다. 언제부터인가 잠이 일찍 깨어 아침 시간이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다. 일어나면 습관처럼 문 밖에서 신문을 가져온다. 하루는 신문을 뒤적거리는데 ‘나이가 드는 즐거움’이라는 소설가 김연수의 글이 눈에 띄었다. 거기에는 “젊음과 마찬가지로 늙음도 공짜처럼 주어진다. 그래서 원치 않는데 손에 주어지는 전단지처럼 젊음이나 늙음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진다”면서, 현명하게 젊기는 어려우나 현명하게 늙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 나는 가끔 지인들과 만나면 유머랍시고, 오래 살려면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고 물어본다. 대답은 다양하다.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하고, 소식하는 것이 제일이라고도 한다. 내 대답은 ‘나이를 먹어야 오래 산다’이다. 사람들은 오래 살려고 하면서 나이를 먹는 것은 싫어한다. 나이 먹는 것을 차의 속도에 비례하기도 한다. 강준만 교수는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라는 책에서, ‘왜 나이 들수록 시간은 빠르게 흐르는가?’를 ‘시간압축효과’로 설명하고 있다. 나이가 먹을수록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억할만한 것도 사라지고, 시간이라는 열차는 기억이라는 정거장을 경유하지 않은 채 마구 내달려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조정래의 <아리랑>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은 대목이 있다. 일제 강점기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끌려간 사람들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늙어가는 것의 억울함을 토로한다. 이에 한 사람이 자기는 억울하지 않다고 하며 “우리 늙어가는 세월 자식들이 받아 먹고 컸다”고 말한다. 나이를 먹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삶이 현명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트로트를 좋아한다. 그래서 즐겨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가요무대’이다. 저녁에 헬스클럽에 가면 걷기 운동을 하면서, 가끔 이 프로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한다.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거의 다 안다. 그날도 그랬는데,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아내와 운동을 함께 다니는데 탈의실에서 어떤 여학생이 불평을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어떤 노인네가 눈치도 없이 뽕짝을 크게 따라 불려, 옆에서 걷기를 하다가 기분이 상해서 들어왔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하다가 그게 ‘나’라는 것을 직감하고 배꼽을 잡고 웃었다는 것이다. ‘그래! 나 노인네다’. 헬스장에서 항상 흘러나오는 아이돌 노래를 따라 불렀더라도 기분이 상했을까? 요즘 유행하는 현아의 ‘빨개요’의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현아, 현아는 Yeah”를 따라 부르는 나를 상상해 본다.

요즘 중년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 중의 하나가 나훈아의 ‘고장난 벽시계’라고 한다.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라는 가사를 목청을 높여서 부른다. 왜 나훈아는 컴백을 하지 않을까? 가끔 명절 특선 프로그램에 나오면 정말 좋았는데... 최근에는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가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다.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는 듣기가 좋아 가끔은 흥얼거린다. 이것은 내 개인의 편향이 아니라 순전히 전문가(?) 수준에서 하는 평이다. 세월의 흐름을 속절없다고 하는가 하면, 숫자에 불과한 나이 앞에서 당당함을 보이기도 한다. 나이 먹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다.

가끔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으면 바쁘다고 말한다. 그러면 이 나이에도 무엇을 그렇게 바쁘게 사느냐고 핀잔을 한다. 글썽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연구도 해야 하고 논문도 써야 하고 책도 써야 하고, 나는 80세에 아직도 계속해서 책을 쓰시는 은사님이신 김재영 교수님을 존경한다. 가끔 만나 뵈울 때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하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할 일이 없어”라고 하신다. 그래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선생님이 평생 하시는 일을 말릴 수가 있을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주어진 삶을 최대한 활용하는 삶. 건강도 챙겨가며 자신의 생활을 즐기는 삶. 이것이 현명하게 나이를 먹어가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오늘 저녁에도 헬스장에 가야지!



김창희 위원
전북중재부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비염



김태균 한의사

코가 늘 막혀 있다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필자는 학창시절에 항상 비염(鼻炎)으로 고생을 했었다. 먼지가 많거나 공기가 차가우면 늘 재채기를 하곤 했다. 콧속은 항상 부어 있었고 눈은 건조하고 따가웠으며, 콧속이 간지럽고 자주 재채기를 했다. 눈 밑은 다크서클로 검어졌고 얼굴은 잘 부었다. 약을 먹으면 좀 진정이 됐다가 약을 끊으면 또 다시 비염이 재발하곤 했는데 그 기간이 무척이나 길었다.

코의 후각 신경은 뇌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코가 좋지 않으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게 된다. 공부나 잘 되지 않고 능률도 많이 떨어지게 된다. 코는 냄새를 맡는 기관이기 때문에 늘 촉촉한 점막으로 유지돼야 한다. 그런데 콧속이 너무 과민하게 되면 쉽게 코 점막이 충혈되고 붓게 되고 콧물이 나오고 재채기가 생기게 되며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 대개는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거나 염증이 심한 경우 독한 약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잠시 증상을 경감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체질(體質)이 바뀌지 않는다면 완치(完治)가 되지 않는다.

비염이 심해지면 부비강염(副鼻腔炎, paranasal sinusitis)으로 진행될 수 있다. 콧구멍의 가운데 통로를 비강(鼻腔)이라고 하는데 그 통로의 바깥쪽에 좌우 4개씩 부비강이 있다. 부비강의 만성염증은 흔히 축농증(蓄膿症)에 해당하는데, 부비강 내에 항상 농즙(膿汁)이 고여있고 비강 내에 조금씩 유출이 되며 코가 막히거나 두통(頭痛), 두중감(頭重感), 후각장애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비염이 심해지면 부비강염뿐만 아니라 인후염, 편도염, 아데노이드염, 중이염 등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 전신적인 여러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 축농증과 단순한 감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코가 막힘이 심하고 2주 이상 막혀 있을 때에는 축농증이 왔을 가능성이 많다.

비염은 한방(韓方)으로도 잘 치료가 되는데, 최근에는 매선요법(약실자입요법)으로도 비염을 치료한다. 매선요법은 근래에 도입된 치료 방법으로 한번 시술을 하면 2~3주 이상 코를 시원하게 해주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다. 또한 침 치료나 체질에 맞는 한약처방으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비염이 있는 사람은 평소 관리가 무척 중요하다.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며 비염이 유발되는 요소를 피해야 하는데 매연(煤煙), 집 먼지, 진드기, 여러 털 종류, 건조한 환경 등을 가급적 멀리해야 한다.

또 섭생(攝生)이 무척 중요하다. 일단 평소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물은 온 몸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코의 점막이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코 점막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또한 평소엔 비타민C가 많이 든 음식을 먹어서 염증을 예방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데, 특별히 파인애플이 무척 좋은 효과를 지닌다. 파인애플은 코 점막 손상을 효과적으로 치료해준다. 파인애플에 함유된 여러 효소들은 염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며 축농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한다. 채소 중 고추, 생강, 마늘은 여러 염증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스턴트 음식을 멀리 하고 이 같은 천연적인 재료의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한다.

그리고 피곤이 쌓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비염이 잘 재발될 수 있다. 평소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휴식으로 몸의 상태를 최상으로 만들면 도움이 된다. 평소에 자녀들이 환절기가 되어 재채기를 하거나 코를 자주 푸는 광경을 보게 된다면 무심하게 지나치지 말고 얼마나 오래됐는지,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해본 후 의심스럽다면 병의원에서 검진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소에 비염에 도움이 되는 먹거리로 식단을 채우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미국 페퍼다인 로스쿨 분쟁해결 전문 석사과정 연수 후기(II)

美 LA지방법원 소액재판 조정인 활동기



장 성 원
전북사무소장

“(서기) 판사님 입장하십니다. 기립해 주세요!”

“(판사) 오늘 재판은 오후 5시까지이고..., 여기 조정인(mediator)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정반대의 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니 조정을 적극 권하겠습니다. 조정인, 나와서 얘기하세요.”

“감사합니다, 판사님(Thank you, Your Honor).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페퍼다인 로스쿨 입학 후 4주가 지난 어느 날, 장소는 LA지방법원 벤 나이스 소액재판 법정. 필자는 판사석 앞에 서서 방청석을 메운 다양한 인종의 원고 및 피고들을 상대로 조정의 장점(과 재판의 단점)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었다. (그것도 영어로!)

지금 생각해도 진땀나는 경험이었다. 남 앞에서 서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지만 영어로 대중 스피치를 해본 적은 없는데... 하지만 필수 과목인데 어쩔라. 친구가 된 로스쿨 직원한테 부탁해서 멘트도 보완하고 리허설도 했다. 그리고 법원에서 다른 조정인들이 하는 걸 보면서 이 미지 트레이닝도 열심히 했다. 아마 등장인물들이 영어를 쓰는 꿈을 꾸기 시작한 시점도 이즈음이 아니었을까 싶다.

“Something is better than nothing!”

소액 재판 사건은 대부분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과 교통사고 과실 및 의료비 사건이었고, 기타 금전 차용 분쟁 등이었다. 알아야 면장을 하는데, 관련 캘리포니아 법 해설을 봐도 처음엔 감이 오질 않았다. ‘그래, 이런 게 커뮤니티 조정이야하면서도 소액 재판도 참 관하고, 다른 조정인들 옆에서 귀동냥하면서 “Something is better than nothing” 같은 표현을 외워서 써먹었다. 조정 경험이 쌓이면서 문화권마다 분쟁해결 방식이 다르다는 것도 배웠는데, 예를 들어 유럽의 아르메니아 출신 사람들은 대놓고 소리 지르고 싸우길 좋아하지만 실상은 조정에서 다 합의하지 판결을 싫어한다고 한다.



LA 지방법원 채스워스 지원

기억에 남는 소액조정 사건 1: 아버지의 유산(遺産)

LA다운타운 지방법원 본원에서 중남미계 세입자 할머니와 중년의 집 주인 간 분쟁을 조정했다. 우리나라 시골 할머니 같으신 원고는 자기가 그동안 건물 주위 청소도 했으니까 밀린 월세는커녕 오히려 수고비를 달라는 주장이었다. 집 주인은 밀린 월세를 내든지 나가달라고 했다. ‘집세도 안내는데 적반하장인 노친네군.’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오래 산 정든 집에서 계속 사시려는 생각 정말 이해합니다, 할머니.” 하면서 원고 손을 꼭 잡으면서 감성 조정을 시도했다. 그런데 할머니는 한참 있다 울먹이며 이사 가고 싶다고 했고, 밀린 월세는 줄 수 없고 이사 비용 등을 달라고 했다. 조정이 어려울 걸로 보고 다른 방에 있던 집 주인에게 얘기했더니 또 의외로 쌍수를 들고 돈을 줄 테니 빨리 나가달라는 반응. 알고 보니 이 할머니는 집 주인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후처였던 것. 결국 원고가 2개월 이내에 우리 돈으로 3백만 원을 받고 이사 가는 것으로 합의됐다.

기억에 남는 조정사건 2: 왔다! 일당백(一當百) 진상 입주자

갈등을 키우는 성격 장애(Personality Disorder)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재미있는 로스쿨 수업을 듣던 필자에게 딱 들어맞는 당사자가 나타났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남발하시면서 모든 회계자료를 다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을 청구하신 그 분, 법원 복도에서 입주자 대표들이 가지고 온 박스터미를 몰래 뒤지시다 걸리자 소리부터 뻗 지르시곤 화장실로 가시는 그 분, 조정을 시도하자 의심부터 하시고 보통 자세히 안보고 서명하는 조정 비공개 서약서를 눈이 빠지게 읽어 보시는 그 분, 조정 끝에 입주진 대표들이 자료를 보여주기로 정했는데도 다음 재판 기일에 보자며 부리나케 가시는 그 분. “어디나 있다”던 교수님의 말씀과 더불어 돌이켜 보면 그 아파트 대표들에게 우왕청심환이라도 드릴 걸 그랬나 보다.



쿠오바디스, 인터넷



남승균 소장
대전/충북사무소

요즘 사람들은 신문을 구입하기보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기사를 검색한다.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언론사라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어서 이제는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는 언론사를 찾아보기가 오히려 힘들다. 언론사들은 배포의 수단으로는 물론 취재에도 SNS를 활용하며, 기자들은 블로그를 통해 기사의 비하인드 스토리나 나름의 소회를 밝히기도 한다. 그런데 언론피해구제의 측면에서는 이런 현상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어느 학교에서 일어났던 성폭력 논란을 다룬 기사에 대해 조정신청이 들어왔다.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내용과 함께 학교폭력처리 가이드북에 맞게 사건을 처리했다는 학교장의 발언이 인용된 기사였다. 그러나 피해 학생의 가족은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학교장의 발언과 달리 사건이 매뉴얼에 따라 처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의 심리에서 피해 학생 가족의 격앙된 마음을 가라앉힌 후 지면을 통해 가족 측의 반론을 보도하고 인터넷 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됐다.

그런데 반론보도와 기사삭제가 이루어진 후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언론사가 운영하는 블로그는 조정신청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블로그에 게시된 내용이 여전히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언론사의 협조로 며칠 후 기사의 '찌꺼기'까지 삭제되었지만, 피해 학생의 가족들은 악몽 속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또다시 견뎌야 했다.

지난 2010년 대법원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방문했을 때 원래 제공되는 광고 대신 다른 광고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한 회사의 민법상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에 대해 금지 및 예방청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기업이 오랜 기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 구축한 '네이버'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무단으로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면 이는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해 얻은 부당이득이라는 것이다.

이 판결이 시사하는 맥락에서 생각해보자. 피해 학생의 가족들은 그들에 대한 정보가 포털에서 '검색됨'에 동의했을까? 물론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거대 포털 회사와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웹 3.0을 말하고 있는 시대이지만, 빅데이터라는 거시적인 세계는 결국 개인이라는 미시세계에서 일어난 시간의 총합이다. 인터넷이라는 산업이 이렇게 구축된 가치를 이익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면, 그 속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해소나 개인정보침해의 예방을 위한 노력은 기업의 리스크 정책의 일환으로라도 반드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러나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포털사에 메일을 보내는 것 이외에는 연락할 방법조차 알아내기 어려운 것이 디지털 시대의 현실이다.

구글 검색결과에 나타난 링크 삭제의 타당성을 인정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제화가 진행 중이다.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만큼이나 언론의 자유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인터넷 '언론'만 한정해서 본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기사의 수정이나 삭제 조치를 통해 잊혀질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보듯 '언론'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프랙털 구조의 인터넷 생태계에서는 그 파장이 어디까지 퍼질지 예측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윤리적인 논의가 없다면 이런 피해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자식에 대한 기사가 웹사이트에 떠다니면서 세간의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을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가족의 심정을 헤아려 본다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해를 발전의 논리만으로 가릴 상황은 아니다. 그것이 내일 당장 내 일이 되지 않으리라 누구인들 장담할 수 있을까.





“공인 보도와 관련된 의미 있는 기준을 세우는 기회가 될 것”

언론중재위원회 ‘공인보도와 인격권’ 세미나 개최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에 걸쳐 경북 문경STX리조트에서 개최된 2014년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에서는 ‘공인보도와 인격권’이라는 주제로 공인보도 관련 다양한 이슈들이 심도 깊게 다뤄졌다.

박용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인보도에서 어느 선까지 공개를 허용할 것인지에 관해 세심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인의 범주 등 공인보도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언론인들이 널리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준을 세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자인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인 관련 보도에서 언론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공인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언론의 기본 임무이므로, 공인 보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스포츠 스타나 유명 연예인 등도 공적 인물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범주가 넓어짐에 따라 다종다양한 공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형을 세분화해 그 지위나 역할에 따라 차별적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인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내밀영역은 보장돼야 한다며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가족이나 연인 등 주변 인물은 공인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속하는 경우 가족 등의 사생활을 보도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권석천 중앙일보 사회2부장은 언론자유와 공인의 인격권, 두 가치의 균형이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에 의한 보도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공익적 가치와 개인의 피해를 신중하게 비교한 후 보도 여부를 결정하고 보도내용을 다듬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며, 종국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언론 스스로의 책임감이라고 강조했다.

권오승 위원(서울제6중재부)은 공인 범위에 대해서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기업인의 경우 공직자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진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우리 사법부의 공인에 대한 이해를 요약하면, ‘공직자를 포함한 공인이란 국민의 귀감이 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도덕적이고 정당하게 공적 활동을 해야 하는 존재로서 이들에 대한 정보는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며 언론의 감시, 비판, 견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라며, 미국 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아직은 공인이 공직자와 유사한 인물처럼 이해되고 있으며, 대중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끌고자 하고 미디어에 의해서 유명해진 인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인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제민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공인의 사생활에 대한 보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보도되어서는 아니 되고 그것이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 경우에만 허용될 필요가 있다며,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도 대상이 공인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지만, 공인이라는 이유로, 대중의 관심사라는 이유만으로 사생활에 대한 보도가 곧바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언론인과 중재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공인 보도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인보도와 인격권’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손보원
(기획팀)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돈이 아닌 공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시민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지금도 한 봉사활동 단체를 운영하십니다. 때문에 어려서부터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가르침은 제가 개인적 영달이나 부귀영화가 아니라 사회적, 공적 책임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언론사 입사를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언론이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사 준비를 하며 현대사회의 언론이 오히려 사회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언론이 잘못된 보도로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의 결점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언론중재위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일한다면 언론의 허위 보도나 사생활 침해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민을 도움으로써 사회를 개선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언론이 스스로의 존재 목적인 공익성을 제대로 달성하도록 도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입직원 교육을 통해 위원회의 각 팀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사회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30여 년간 언론자유와 국민권익 향상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는 성실한 태도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귀중한 일을 도맡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30년 후 '언론중재위원회'가 더 향상된 모습의 기관으로 발전하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한병훈
(연속교육팀)

"어떻게 경제학을 전공하고 우리 위원회를 지원했는가?" 입사 후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가진 청년으로서 경제학, 꿈,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라는 퍼즐조각을 맞춰나가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전공한 경제학에는 자중손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시장 실패에 기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 혹은 사회후생의 극대화 실패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잉여 구매력과 공급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전체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중손실의 개념은 품어야 할 꿈의 방향을 정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본래 저 또한 경제학도는 숫자만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개념을 공부하며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진할 수 있는 경제학으로서의 가능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경제학으로서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러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입니다. 높은 비용과 오랜 기간이 필요한 기존의 사법절차(공급)와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구제 수요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수요가 충족되도록 힘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큰 뜻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신입직원으로서 한 발 한 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지용
(접수상담팀)

"너 그러다 언론중재위원회 간다." 언론사 인턴 시절, 선배에게 처음 들은 말입니다. 선배는 시민을 인터뷰할 땐 어느 언론사에서 나왔는지, 또 어느 리포트에 어떤 인터뷰로 나가는지 반드시 허가를 얻어야한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언론중재위원회란 그런 규칙을 어겼을 때 가는 곳이었죠. 흡사 "엄마 말 안 들으면 망태할아버지 찾아온다."라는 말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한 번도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에 걸리지 않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1년 뒤, 저는 진짜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왔습니다. 다행인 것은, 제가 피고가 아닌, 신입직원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합격 소식을 받은 순간 꿈인지 생시인지 실감이 안 나서, 위원회 홈페이지에 합격자 발표가 올라올 때까지 숨죽이며 기다렸던 것이 생각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와의 만남, 앞으로 제가 가꾸고 발전시켜야 할 운명이 되었습니다.

언론사는 수백수천 곳이지만, 언론 분쟁을 조정하는 곳은 언론중재위원회 한 곳 뿐입니다. 천금 같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론보도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또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말 잘 듣고 또 열심히 배우는 신입사원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소영
(기사심의팀)

신입직원으로서 교육을 받으면서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입장 차이를 보이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라쇼몽'이라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이 영화에서는 한 사건을 두고 그 사건의 당사자 혹은 목격자와 같은 사람들이 조금씩 다른 진술을 합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갈피를 잡기가 어려워 여러 번 영화를 보았지만 여전히 정답이 무엇인지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진실은 하나라는 점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있는 다른 인물들은 왜 그런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색 끝에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하나의 진실을 두고 개인의 상황과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프레임'이라는 개념과도 연관됩니다. 개개인은 각각의 고유한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개념은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도 많이 쓰이며, 언론이 어떤 프레임에 따라 보도하는가는 개개인의 프레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가 '프레임'에 갇혀 있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인격권을 지키고 균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 역할을 지난 교육 기간 동안 몸소 느꼈습니다. 행여나 저 스스로가 편협한 프레임에 갇혀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 없도록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워 나가며,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자세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COMMISSIONERS

중재위원 14명 위촉

10월 13일자로 중재위원 14명이 위촉됐다. 위원 임기는 2014년 10월 13일부터 2017년 10월 12일까지이다.

중재부	성명	현직
서울제2중재부	지연옥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
	권순택	(전)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상원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
서울제5중재부	홍이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기우	아주대 초빙교수
서울제6중재부	이은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양승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배영근	배영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울제8중재부	전지민	법무법인 정릉 변호사
부산중재부	오창호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대구중재부	송승부	(전)대구MBC 보도국장
경기중재부	오광건	(전)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충북중재부	정정목	청주대 행정도시계획학부 교수
제주중재부	양원홍	제주영상문화연구원 원장

학교법인 배영학숙 제11대 이사장으로 취임



바 있다.

장익현 위원(대구중재부, 변호사)은 10월 20일 대구보건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학교법인 배영학숙 이사장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장 위원은 지난 6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학교법인 배영학숙의 제11대 이사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

저서 '일제강점기 조선언론통제사'로 희관언론상 수상



이연 위원(대전중재부, 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은 10월 18일 고려대 미디어관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언론통제사'로 2014년 한국언론학회 학술상인 '희관언론상'을 수상했다.

부마항쟁 진상규명심의회, 민간위원으로 위촉



남부희 위원(경남중재부, 전 경남신문 논설주간이사)은 10월 6일 국무총리실 산하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 소식

필리핀 등 한국전쟁 참전·지원국 언론인, 위원회 방문



권우동 사무총장(상단 왼쪽 첫번째)이 내빈한 외국 언론인들과 간담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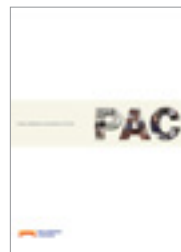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 한국전쟁 참전·지원국 등 10개국 언론인 10명이 지난 10월 21일 위원회를 방문했다.

방문 인사들은 한국의 언론조정중재제도 및 위원회에 대한 교육을 들었으며, 위원회 심리실 등을

견학했다. 이어진 권우동 사무총장과의 간담에서 이들은 언론조정중재제도가 외부 간섭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조직구성, 운영재원, 중재위원 위촉절차 등 위원회 전반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방문은 관훈클럽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동주최한 한국전쟁 참전·지원국 및 개발도상국 초청 '2014년 관훈-KPF 프레스펠로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행사 주최측에서 교육 지원 등을 요청해오에 따라 이뤄졌다.

영문 홍보책자 발행



위원회 영문 홍보책자 'PAC(Press Arbitration Commission)'가 10월 20일 발간됐다. 홍보책자에는 위원회 업무 소개 및 언론조정중재 절차 안내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문이 영역돼 수록되어 있다.

영문 홍보책자는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또는 모바일웹(m.pac.or.kr)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E-BOOK) 발간



위원회는 10월 22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례 및 통계, 결산좌담 내용 등이 수록됐다.

백서는 전자책(E-book)으로 제작됐으며,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CASES

조정중재사례 소개

| 명예훼손 사례 | 인터뷰 발언을 왜곡 보도, 반론보도 게재 및 기사 삭제

A 지면 및 인터넷신문은 신청인이 군복무 시절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인해 8년째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군대가 나를 망쳐 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군 시절 피해를 본 사실과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일이 없고, 현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언론사가 반론보도 게재와 기사 삭제 의사를 밝혀 조정이 성립됐다. 이후 A 인터넷신문에 반론보도가 게재됐고, A 인터넷신문뿐 아니라 해당 기사가 매개된 B 및 C 포털에서 해당 기사가 삭제됐다.

| 초상권침해 사례 |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 손해배상금 150만 원으로 조정성립

B 종합편성채널 방송사는 주부들이 명절 스트레스를 백화점 쇼핑으로 해소하는 세태를 보도하면서 백화점에서 상품을 구경하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을 촬영하여 보도했다. 신청인은 해당 영상은 추석 2개월 여 전의 영상으로 “명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보상소비”와는 무관하고, 동의 없이 초상을 촬영·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재부는 인터넷 보도영상을 삭제한 점을 고려해 당사자를 설득한 결과, 자료화면 표시 없이 보도내용과 무관한 영상을 보도한 점에 대해 B 방송사가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손해배상금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됐다.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정미자 _ 오래전 우연한 기회에 주민센터로 증명서 발급하러 갔다가 「언론  사람」을 접하게 됐습니다. 일반 잡지책과는 달리 법, 언론 등 머리 복잡한 것들이라 읽어보지도 않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일상생활에 유익한 정보,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하고 알찬 내용에 빠져들어 공감하며 꼼꼼히 빠뜨리지 않고 읽는 애독자가 됐습니다. ‘피신청인 후기’를 읽으면서 조리 있는 적절한 설명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내용들이 많은 공부가 돼 참 좋았습니다. 페이지가 조금 적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꼼꼼하게 읽을 수 있어서 좋았고, 알차고 유익한 정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이문희 _ 언론중재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일까?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없고 접하지 않는 곳 또는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언론중재위원회의 대외홍보지인 「언론  사람」을 보면서 실상 언론중재위원회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변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10월호 중에 「갈등해소는 사실관계 존중으로부터」라는 글이 매우 기억에 남습니다. 요즘 뉴스나 기사를 보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거나, 왜곡된 기사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경향이 많아 독자 입장에서는 객관성을 가지고 사실을 볼 수가 없고 뉴스나 기사에 생각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fact)을 다루는 뉴스는 주장(view)을 다루는 사실이나 칼럼과는 달리 어떤 사안에 대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를 배제하는 가치중립적(value-free) 문장이다”라는 글귀가 크게 와 닿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이나 반론,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익한 정보를 담은 「언론  사람」, 그리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언론중재위원회, 모두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승현 _ 시사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근거없는 비방 중상과 편향적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어 법적인 소송을 해본 경험 이후로, 정당한 주장과 의견이라 할지라도 언론의 편파성과 일단 흥행성을 위해 막무가내로 기사화하는 관행을 우려해 스스로 ‘자기검열’에 고민하던 시점. 동료의 권유에 의해 「언론  사람」을 구독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딱딱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로 접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던 우려와는 달리, 실생활에서 다 가설 수 있는 소재와 테마로 콘텐츠가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저도 모르게 첫 머리기사부터 끝 페이지까지 꼼꼼히 읽어내려 갈 정도로 독자를 배려한 구성에 박수와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10월호 위원단상 코너의 「갈등해소는 사실관계 존중으로부터」라는 칼럼에서 매스컴 종사자에게 있어 ‘사실’과 ‘주장’을 명확히 할 의무와 사명감에 대해 지적인 부분은 절절히 가슴 속에 와 닿았습니다. 앞으로 언론관계 직업을 희망하며 그것을 위해 일로 매진하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도 훌륭한 귀감과 교훈이 되는 글이었습니다.

조정중재신청,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 Eye-Net 서비스!!

언론중재 Eye-Net 이란?

- 언론중재Eye-Net은 전자적으로 조정중재를 신청하고 심리절차를 진행하는 전산정보시스템입니다.
-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상담, 조정중재신청, 심리준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언론중재Eye-Net을 찾아주세요.

언론중재 Eye-Net 이용안내

1. 전자제출 _ 위원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 중 각종 서류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전자민원 _ 묻고 답하기와 1:1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각종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자송달 확인 _ 위원회에서 전자송달한 각종 통지서, 조정조서, 결정문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나의 전자심리 _ 나의 사건 진행내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고, 진행 중 사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 Eye-Net <http://people.pac.or.kr>

언론중재
Eye-Net 서비스





2014 언론중재위원회 국제컨퍼런스

The New Era of Freedom of the Press

디지털 미디어시대의 언론자유에 새로운 지평

2014.11.12(WED) ~ 11.13(THU)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보도와 분쟁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의견 공유를 위해
세계각국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11.12. WED
10:30~12:30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 홀

1세션 언론보도의 가이드라인,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사회자 | 박홍수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전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01 언론의 피의사실 보도 행태 – 일본과 한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 Tomoyuki Kataoka (일본, 변호사)

02 자살보도 윤리에 대한 오스트리아의 관점 | Alexander Warzilek (오스트리아, 언론평의회 이사)

03 중국 재난보도 현황 연구 | Zhou Yu Bo (중국, 인민망(인민일보 인터넷판) 한국지사장)

11.12. WED
14:30~16:30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 홀

2세션 세계의 언론피해구제제도와 ADR 솔루션

| 사회자 | 박성희 (서울제8중재위원,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장)

01 인도네시아 언론평의회의 변화 | Christiana Chelsia Chan (인도네시아, 언론평의회 사무총장)

02 언론피해구제제도에서 ombudsman의 역할, 언론평의회와 ombudsman 간의 협력방안

| Tarmu Tammerk (에스토니아, 방송ombudsman기구 대표, 공영방송사 ombudsman)

03 한국의 언론조정중재제도 | 정준영 (한국, 특허법원 부장판사)

11.13. THU
10:30~12:30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3세션 인터넷 미디어 환경에서의 새로운 이슈들

| 사회자 | 안착희 (중앙일보 글로벌협력팀장)

01 디지털 시대의 '잊혀질 권리' | 염규호 (미국, 오리건대 석좌교수)

02 신속성과 정확성 – 둘 중 무엇을 외면할 수 있나 | Balazs Weyer (헝가리, 편집자협회 회장)

03 중국의 디지털 미디어 관련 이슈들 | Chen Kaihe (중국, 북경대 신문방송학과 부교수)